



ESCO투자 사업 3/4분기까지 1000억원 돌파

대규모 복합설비공사의 증가 등 질적변화 활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정장섭)은 올 3/4분기까지 ESCO 투자사업에 추천된 자금이 1,02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91억원과 비교할 때 48%가 증가하여 ESCO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 ESCO시장의 특징은 조명 등 소규모 단순설비 사업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열병합 발전, 폐열회수, 냉난방 등 대규모 복합설비공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작년에 한 사업당 평균 1억3천7백만원이 투자되던 것이 올해는 사업당 3억3천7백만원이 투자되어 사업규모 또한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ESCO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올해 ESCO 사업의 또다른 특징이다. 지난해 ESCO 사업 중 공공부문이 전체 ESCO 시장의

50%(376억원)를 차지한데 반해 올해에는 24.1%(247억원)에 불과해 민간부분의 ESCO시장이 활성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민간부문 중에서도 산업체가 전체시장의 54.3%를 차지해 ESCO시장이 성숙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측 관계자는 ESCO투자사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이유로, 우선 고유가 시대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에너지 절약시장의 팽창을 들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생산을 조절할 조짐을 보이는 등 에너지 절약 관련 시장에 호재 요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둘째 ESCO시장의 신뢰성 향상을 들었다.

초기 ESCO 사업들의 성과배분 완료와 함께 성공사례가 속출하고 있

어 에너지 사용자들의 ESCO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된 상황이다. 또한 ESCO사들 역시 기존의 절약기술을 탈피, 새로운 에너지 절약 아이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ESCO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들었다.

정부는 ESCO제도가 국가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10여년 동안 제도 운영 및 홍보, 저리의 자금 대출 등 ESCO사들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왔다.

공단측은 이런 내·외적인 요소를 감안할 때 향후 ESCO시장은 청신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올 ESCO예산도 이미 초과 추천되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자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련 공청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은 중앙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설치의무화 되어 있는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0.24일(목) 오후 3시에 양재동 농업무역센터에서 개최했다.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난방열량계는 아파트난방비를 각 세대별 사용량에 맞춰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계량기로서 평형별 일괄부과와 비교해 10~20% 에너지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금번 개정(안)은 난방계량기의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실무적으로 필요한 난방비부과방법 및 난방수공급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개정(안) 사항으로는 난방계량기의 설치대상을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토록 확대, 난방순환수의 수질관리기준 신설, 난방계량기의 AS기간 연장 및 교체기간을 명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실무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광고게재안내
T.(02)679-6343

VA협약이행 우수업체 포상 및 산업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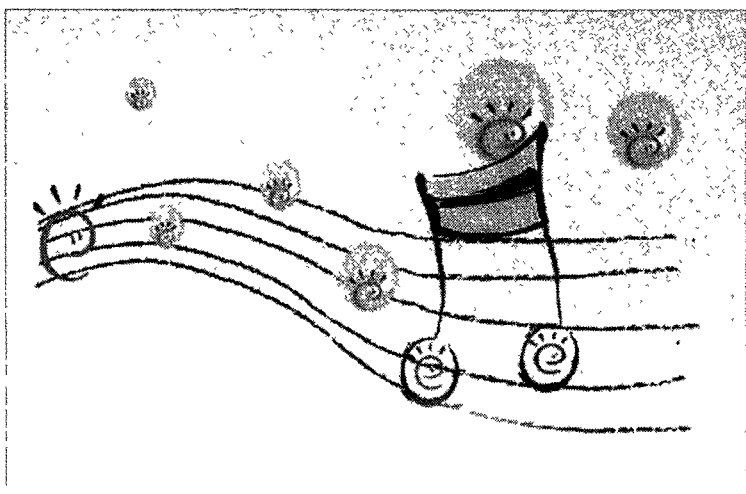
우수사업체 각종인센티브제공

에너지관리공단은 자발적협약 이행 실적 우수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사례발표·우수사업장 방문 및 우수기업에 대한 인정서 수여 등의 행사를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주도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1년도 VA협

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40개 사업장에 대해 인정서를 수여하였고, 13개 사업장의 우수에너지관리자들에게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여 현장에서 에너지 관리에 전념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

특히 이번에 인정서를 받은 40개 사업장은 이행실적 종합평가 결과 업종별로 상위 선정된 사업장으로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진단비용의 50% 감면, 에너지절약마크 사용권한 및 에너지관리지 홍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1월은 에너지절약의 달!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요.



에너지는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자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의 필요성을 잊은 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유한자원이며 국가경쟁자원입니다.

에너지절약의 즐거움!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맞이하여

나부터 시작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이 필요합니다.

- 산업체에서는 고효율유도전동기 같은 에너지절약형 제품 사용과 폐열회수 이용, VA(에너지절약자발적협약) 가입 및 ESP(에너지절약기술정보협력)활용
- 가정에서는 에너지절약마크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부착된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등 에너지절약형 가전 제품의 선택사용

◆ 11월은 에너지절약의 달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 일시 2002 11 21(예정) • 장소 한국전력공사 대강당 •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및 사례발표 • 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 에너지절약 유공포상대상자	<input type="checkbox"/> APEC 신재생에너지전시회 • 일시 2002 11 7~11 9(3일간), 10:00~17:00 • 장소 서울 농업무역센터(서울 서초구 양재동) • 참여기업 APEC역내 11개국 60업체 • 신재생에너지분야 제품전시 태양광셀 태양력발전시스템, 태양열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 기술보급 세미나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대회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 기술보급 세미나	<input type="checkbox"/> APEC 대체에너지 전문가 그룹회의 11.4~11.6 <input type="checkbox"/> 제14회 신재생에너지 워크숍 11.7~11.8 <input type="checkbox"/> Solar car 경주대회 11.7~11.8

* 에너지와 환경 인간을 생각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www.kemco.or.kr